

외로움과 고립의 시대에 교회의 역할 모색*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경석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

- I. 서론
- II.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이론적인 논의: 정의와 영향
- III. 외롭고 고립된 대한민국의 현실과 원인
- IV. 정부의 대응과 한계: 고립 은둔 대상자 지원 부족
- V. 교회의 역할 모색
- V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5.61.04>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22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ABSTRACT •

Exploring the Role of the Church in an Era of Loneliness and Isolation

Prof., Chon, Yongho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Choi, Kyung Suk (Namseou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prevalence of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in Korea while exploring potential roles for the Korean church in addressing these challenges. Drawing on extensive literature from social welfare and Christian ethics, the research systematically examines how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ffect various demographics — youth, middle-aged adults, and the elderly — throughout Korean society.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se conditions correlate strongly with critical social problems including depression, suicide, and solitary death. Despite recent governmental initiatives targeting these welfare blind spots, current approaches remain predominantly reactive, lacking both systematic support frameworks and effective mechanisms for identifying affected individuals. From a theological perspective, relationship restoration stands as a central imperative; the church must function as a community that rebuilds human connections for those experiencing isolation. This requires consistent outreach efforts to locate isolated community members and establish meaningful networks. Additionally, the church should reinvigorate its internal small group structures — cells, districts, and class meetings — to foster fellowship and prevent isolation among congregants.

Key words: Loneliness, Social Relationships, Social Isolation, The Role of Church, Restoration of Relationships

I. 서론

대한민국은 서구 선진복지국가 보다 빠른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이다.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서 빈곤에서 탈출한 나라가 되었고,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다. 2024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6,624달러로 추정되는 반면에 일본은 2024년 1인당 GDP가 약 34,500달러로 추정되면서¹⁾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정도로 눈부신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뤘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은 2023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전체에서 22위를 차지했다.²⁾ 한국은 5가지 영역별로 10점 만점에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기능 8.57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6.25점, 시민의 자유 8.82점을 기록했다. 한국은 평균이 8.0점을 넘으면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범주에 들게 되었다. 한국은 경제와 정치 후진국에서 1960년대에 시작한 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경제의 발전을 이루었고, 4·19혁명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해서 학생, 노동자, 시민사회가 함께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 단기간에 압축적 근대화를 겪으면서 눈부신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이 오히려 ‘독(毒)’이 된 것일까?³⁾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어졌지만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유엔에 따르면 세계에서 한국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951점으로, 조사대상 137개국 중 57위를 기록했다.⁴⁾

특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은 외롭고 일상에서 대화를 나누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외로움이 깊어

1) 한국은행,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한국은행, 2025).

2) EIU, “민주주의 지수 2023: 갈등의 시대 (Democracy Index 2023: Age of conflict),”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2024)

3) 윤홍식, 『이상한 성공』 (서울: 한겨레출판사 2021)

4)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세계행복보고서』 2023

지면서 일부는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객관적 상태인 ‘사회적 고립’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⁵⁾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적 고립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에 거대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고립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데 가구의 소형화로 인한 1인가구의 증가와 개인주의 및 개별화, 사회적 관계성의 약화로 인한 사회적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고립의 상태에 직면해 있다.⁶⁾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직면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건강이 나쁘거나, 은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더 빨리 사망하거나, 혼자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나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각종 위험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높은 자살율과 고독사의 급격한 증가 등과 연결되어 있는 위험요인으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서 등장하고 있다.⁷⁾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비롯해서 언론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은둔에 있는 가구가 집단으로 자살하거나 고독사로 발견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부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응해서 사각지대 대상자의 발굴 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외롭고 고립된 사람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가족의 지지역할이 감소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5) 김성아, 박민진, 김정아. 『서울시 1인가구 외로움·사회적 고립 실태와 대응전략』. (서울, 서울연구원, 2022), 1-129.
6) 김진희,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상태에 따른 유형 분석,” 『한국과 세계』 6/6(2024), 527-551.
7) 송혜영. “외로움 전염: 국제사회 동향 및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연계’의 의미,” 『복지 이슈투데이』 (서울, 서울시복지재단, 2025), 10-11.

이처럼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주변의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것을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강조하셨다. 예수님의 직접 힘없고 소외된 자들과 친구가 되셨고 굶주린 자들을 영적으로 물적으로 공급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현재 기독교 학계에서는 이 같은 현실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국가와 사회에 의한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최근에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해지고 있지만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한 연구는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문제와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연구했다.⁸⁾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문제에 대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Koinonia와 Diakonia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그는 고독감과 고립,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자들을 섬기며 돌보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고 오늘날의 교회도 초기교회 공동체와 같이 삶의 자리에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Koinonia의 삶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⁹⁾ 최근 연구는¹⁰⁾ 교회는 기독교인만의 신앙공동체가 아니라 사회공동체, 경제공동체로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이 사회에 기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며 고통에 처한 이웃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과 공감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등장한 한국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현실과 원인을 진단하고, 한국 교회가 이 같은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8) 권혁남,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문제와 교회의 사회적 책임,” 『신학과 실천』 39(2014), 461-480.

9) 위의 글.

10) 오만중, “사회적 고립과 단절에 대한 교회의 실천적 역할과 과제,”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세미나 자료집』 (2025), 343-370.

본 논문은 첫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이론적인 논의를 하고, 둘째, 외롭고 고립된 대한민국의 현실과 원인을 제시하고, 셋째, 정부의 대응과 한계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이론적인 논의: 정의와 영향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로움은 단순히 개인이 느끼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여겨진다. Perlman과 Peplau(1981)¹¹⁾는 “외로움은 개인이 원하는 사회적 관계와 실제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 간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주관적인 감정 상태이다”라고 정의했다. 사람이 느끼는 외로움은 단순히 개인의 정서적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인 것이다. 이는 단순히 혼자 있는 물리적 상태가 아니라, 개인이 관계의 부족을 인식하고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Weiss(1973)¹²⁾는 “외로움을 사회적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했을 때 경험하는 불쾌한 감정 상태”로 정의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더욱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Cacioppo와 Patrick(2008)¹³⁾은 “외로움은 사회적 연결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심리적 고통”이라며 외로움이 사람에게 분명한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11) D. Perlman and L. A. Peplau,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Loneliness,” R. Gilmour and S. Duck (Ed.) *Personal Relationships in Disorder*, (Academic Press, 1981), 31-56.

12) R. S. Weiss,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Boston: MIT Press, 1973)

13) J. T. Cacioppo and W. Patrick, *Loneliness: Human Nature and the Need for Social Connection* (W. W. Norton & Company, 2008)

사회적 고립도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Cornwell & Waite(2009)¹⁴⁾은 “사회적 고립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거나 매우 제한적인 상태”라고 정의한다. 이 개념은 학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으로 주관적 고립(perceived isolation)과 객관적 고립(social disconnectedness)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회적 단절감과 외로움을 의미한다.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객관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개인이 충분한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거나 관계의 질이 낮다고 인식할 경우 주관적 고립을 경험할 수 있다. 개인의 감정적 상태와 인지적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에 객관적 고립은 개인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보더라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빈도, 사회적 활동의 참여 여부 등의 양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객관적 고립이 높은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타인과의 접촉이 적으며,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 이 같은 주관적 고립과 객관적 고립은 당사자가 느끼는 것을 고려하면서도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고립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Nicholson(2012)¹⁵⁾은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접촉 빈도가 낮고 네트워크가 제한적인 상태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정의는 앞에서 제시한 Cornwell & Waite(2009)의 객관적 고립의 측면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사회적 고립을 개인적인 측면의 감정에

14) E. Y. Cornwell and J. W. Linda, “Social Disconnectedness, Perceived Isolation, and Health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0/1(2009), 31-48.

15) N. R. Nicholson, “A Review of Social Isolation: An Important but Underassessed Condition in Older Adults,”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33/2-3(2012), 137-152.

그치지 않고 객관화시켜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학문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Holt-Lunstad, Smith과 Layton(2010)¹⁶⁾은 “사회적 고립은 가정, 직장, 지역사회 등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서 상호작용이 부족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개념정의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집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가족과 같이 유사성과 친밀성에 기반한 1차집단과 이해관계에 기반한 회사 등의 2차집단 등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와 같은 상호작용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처럼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사람의 건강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의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겪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혈압이 높아지고, 면역 세포의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킨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관상동맥 심장 질환(CHD)과 뇌졸중의 발병 위험을 각각 29%와 3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외로움이 조기 사망 위험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고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다른 분명한 일반적인 위험요인(예: 비만)보다 더 큰 건강 위험 요인이라고 밝혀냈다.¹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한다. 이 연구는 외로움이 신

16) J. Holt-Lunstad, T. B. Smith, M. Baker, T. Harris, & D. Stephenson,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s Risk Factors for Mortality: A Meta-Analytic Review.”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0/2(2015), 227-237.

17) N. K. Valtorta 외.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s Risk Factors for Coronary Heart Disease and Stroke: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Heart*, 102/13(2016), 1009-1016.

18) J. Holt-Lunstad,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s Risk Factors for Mortality,” 227-237.

체적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¹⁹⁾ 사회적 고립은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으며, 사람들과 교류가 적은 사회적 활동이 미흡한 노인들이 인지 능력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²⁰⁾ 외로움을 일상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²¹⁾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인 요인이 외로움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²²⁾한국 문화에서는 개인들이 모여 ‘우리’를 형성할 때 힘이 생기는데 소속되기를 원하는 집단에 속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우리가 되면 삶의 힘이 생기지만, 반대로 소속을 원하는 집단에서 타인과 ‘우리’가 되지 못했을 때는 외로움을 상당히 느끼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 인들은 자신의 삶과 관계가 타인의 삶이나 사회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도 ‘타인지향적인’ 외로움을 경험한다.²³⁾ 타인과의 비교적인 측면에서 열위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인들은 자율성의 결여로 인한 심리적 거리감 때문에 외로움을 느낀다.

19) L. C. Hawkey and J. T. Cacioppo, “Loneliness Matter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of Consequences and Mechanisms,”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40/2(2010), 218-227.

20) B. D. James 외, “Late-Life Social Activity and Cognitive Declin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uropsychological Society*, 17/6(2011), 998-1005.

21) J. T. Cacioppo and L. C. Hawkey, “Perceived Social Isolation and Cogni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3/10(2009) 447-454.

22) 서영석, “한국인의 외로움(loneliness): 개념적 정의와 측정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 회지: 일반』 39/2(2020), 205-247.

23) 위의 글.

III. 외롭고 고립된 대한민국의 현실과 원인

한국 사회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²⁴⁾,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2023년 53.6%에서 2024년 57.0%로 증가했으며, 응답자의 89.0%는 사회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외로움이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닌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도는 2019년 27.7%에서 2023년 33.0%로 급증했다.²⁵⁾ 사회적 고립도는 조사대상 인구 중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둘 중 하나라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로서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3명 중의 1명이 부탁하거나 대화할 상대가 없을 정도로 인간관계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최근에 수행된 연구결과²⁶⁾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72%가 최근 한 달 동안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 응답자의 5%가 외로움을 '거의 항상' 느꼈고, '자주' 느꼈다는 응답도 14%로 5명 중 1명(19%)은 외로움에 상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계층이 낮은 하위층일 경우에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은 높아진다. 이 결과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이 낮거나 주관적 계층 인식이 '하'층인 경우, 1인 가구인 경우에 상시적으로 외로움을 느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²⁷⁾

24) 이태영, 뉴시안, "외로움에 빠진 대한민국... "국가의 역할 필요한 때." 2024. <https://www.news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224>. 2025.2.10

25) 통계청, 『사회조사: 사회적 고립』, 2024.

26) 최선아, "누가, 얼마나 외로운가? 외로움 실태조사,"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론』, 21 Feb. 2024.

〈표 1〉 서울시 1인가구의 사회적 정신적 건강문제의 유형과 정책 수요²⁸⁾

유형	외로움군	고립군	외로움우울군	고립우울군
문제 유형	사회적 건강 문제	사회적 건강 문제	사회적 건강 문제 & 정신적 건강 문제	사회적 건강 문제 & 정신적 건강 문제
추정 비율	45%	10%	5%	3%
직업	비경활, 실업자	블루칼라	관리전문직, 실업자	관리전문직, 화이트칼라
소득 수준	저소득층 > 고소득층	저소득층 > 중소득층	저소득층 > 중소득층	중 고소득층
특성 요약	경제적 취약, 관계망 적극적 수요	관계망 적극적 수요, 건강관리 욕구 높음	경제적 취약, 신체·정신 건강 취약, 공유주택 수요	소득수준 높음, 적극적 여가, 마음검진·상담 수요, 고립 고독 방지 수요, 생활안전 욕구
	함께이길 원하지만 맺을 기회가 없는 유형. 외로움에도 적극적 대처 노력. 사회적 관계망 정책 수요 높음 →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실업자 등에는 경제자립 지원 연계 필요	중장년 비율 높고 외로움에 소극적 대처. 여가생활도 소극적. 노후를 대비하여 중장년들이 스스로 관리하려는 수요 높음 →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및 건강관리 지원 필요	노년층 비율 높음. 공유주택 거주 의향 높음. 경제적 어려움 큼. 주관적 신체·정신 건강 수준 낮음 → 경제적 지원 연계 및 건강관리 지원 필요	소득수준 상대적으로 높고, 관리전문직, 화이트칼라 다수. 주관적 건강 양호 여성 비율 높아 안전 욕구 있음 → 전문상담 기회 제공 및 스마트기술 활용 안전 및 고립 방지 지원 필요
대응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관계망 형성: 1인가구지원센터 활용, 공공시설 여가문화 프로그램 • 경제 일자리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관계망 형성: 1인가구지원센터 활용, 공공시설 여가문화 프로그램 • 건강관리: 건강한 노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검진 및 상담 지원(생명이음 청진기) • 주거: 공유주택 • 경제: 일자리 연계 • 건강: 신체, 정신 건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검진 및 상담 지원(생명이음 청진기) • 안전, 고립 방지: 스마트기술 활용

서울연구원이 2022년 실시한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²⁹⁾에 따라

27) 위의 글.

28) 김성아, 외. 『서울시 1인가구 외로움·사회적 고립 실태와 대응전략』 서울연구원, 2022.

면, 서울시 1인가구 중 외로움을 경험한 비율은 62.1%, 사회적 고립 상태인 비율은 13.6%,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동시에 겪는 비율은 12.8%로 나타났다. 우울증 경험 비율은 7.6%,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은 0.7%였다. 1인가구의 사회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유형화한 결과에 따르면, 외로움군(45%)으로 사회적 고립이나 정신적 건강 문제 없이 외로움만 느끼는 집단, 고립군(10%)으로 외로움을 느끼면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진단된 집단, 외로움우울군(5%)으로 외로움을 느끼면서 우울증이나 자살 생각 등 정신건강 문제를 중복해서 가지고 있는 집단, 고립우울군(3%)으로 외로움과 고립, 정신건강 문제를 모두 중첩해서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³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동시에 겪을 비율이 높았고 세대별로는 노인층보다도 중장년층이 가장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삶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우리는 그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문헌들은 외로움과 고립을 개인적인 차원의 특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의 변화로 인한 특징과 환경적인 요인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단순히 개인이 느끼는 감정 차원의 이슈가 아니라 급격한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층적인 변화와 일정 부분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전통적으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과거에는 주로 노인과 같이 여러 여건이 좋지 않은 대상이 해당했다. 건강과 기능의 약화, 은퇴 후 노동시장 은퇴 등으로 인한 사회적 교류 감소 등으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활동도 제약이 되기 때문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29) 위의 글.

30) 위의 글.

전통적으로 노인이 겪는 4고(苦) 중의 고독고(孤獨苦)와 할 일이 없어지는 역할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무위고(無爲苦)는 노인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과 연관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더 이상 노인만이 아닌 청년층 이상의 전 생애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청년세대는 전통적으로 젊고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과는 거리가 있는 집단이었다. 그러나, 고립 은둔에 처한 청년의 숫자가 최대 5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청년 집단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³¹⁾ 청년 가운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이라고 대답한 청년이 2016년 24만 9천 명에서 2023년 7월에는 40만 2천 명으로 증가했고, 우울하고 낙심할 때 대화할 사람이 ‘없음’ 비율이 2019년 21.8%에서 2023년 31.6%로 급증했다.³²⁾ 청년 중에서 세 명 중 한 명이 일상을 나눌 대화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 원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국 사회가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더 이상 제조업 중심의 고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구조로 진입하면서 청년들이 어렵게 대학을 졸업해도 마땅한 일자리가 부족해서 구조적으로 취업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1.6%에 불과하다.³³⁾ 특히 청년들은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는 초중고등학교를 겪으면서 다른 학우를 협업이 아닌 경쟁의 상대로 여기면서 거리를 두고 외롭게 살아야 하는 구조에서 오랜 기간 살아야 했다. 치열한 경쟁주의 교육 구조가 청년이 되기까지 사람들 간의 거리두기와 긴장감을 갖고 친구를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적자

31) 보건복지부, “고립·은둔 청년, 이제 국가가 돕겠습니다. 2023 실태조사 결과 바탕, 관계부처 합동,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발표,” 2023.

32) 위의 글.

33)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2025.

생존 구조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실패한 청년들은 세상으로부터 숨어서 자기 자신으로 집으로만 고립되어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중장년도 마찬가지다. 전통적으로 중장년은 결혼을 하고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는 이중의 책임을 수행하는 집단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장년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의 위협에 매우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2023년 고독사 사망자수는 3,661명으로 2021년의 3,378명보다 다소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146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097명, 40대 50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³⁴⁾ 특히, 50-60대의 남성이 고독사 위협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장년은 고독사 위협의 심각한 대상자가 되고 있어서 사회적 고립에 매우 취약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³⁵⁾ 중장년은 노동시장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시기가 점차 짧아져서 53세에서 40세로 그 시기가 당겨지고 있다.³⁶⁾ 즉 중장년이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일자리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 중 일부는 소득의 감소로 인한 가족 내 갈등과 해체를 경험할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중장년 남성은 가족 해체를 경험하면 이후에 낮은 사회성과 식사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여성에 비해서 잘하지 못하고 자기관리가 미흡한 점 등의 이유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의 위협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경향성이 있다.³⁷⁾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면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세계 최고의 한국 자살률은 일정 부분 이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34) 보건복지부,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

35) 박선희, 최영화, “중장년 남성 고독사 고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탐색적 사례연구: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8(2020) 45-78.

36) 통계청, 『2021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2021.

37) 홍유빈,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질적연구』 인천대학교, MA thesis, 2024.

IV. 정부의 대응과 한계: 고립 은둔 대상자 지원 부족

외롭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을 위한 복지 정책을 통한 지원과 개입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사회적인 돌봄은 아동, 노인과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국가가 개발한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서 일상에서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각종 일상의 일을 활동지원사가 보조 및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로움이 깊어지면서 우울증이 심해지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꺼려하게 되면서 집에만 있거나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스스로 또는 타인에 의해 점차 단절되면서 사회적 고립 상태에 처하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노인의 고독사 문제에 대응해서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2007년부터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청년과 중장년을 새로운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한 것으로 최근 수년에 불과하다. 물론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히끼꼬모리’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대상자의 발굴과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실천적인 노력을 도모했다.

그러나, 정부가 고립 은둔과 고독사 문제에 적극 나선 것은 최근이다. 청년을 포함한 성인 전 연령대에서 취약한 청년의 고립·은둔과 고독사의 대상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신복지사각지대’로 규정하고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지난 2022년에 발표했다.³⁸⁾ 시행한 지 불과 2-3년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들 신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정부

38) 보건복지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로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발표,” 2022.

의 정책은 주로 공무원과 민간의 통장, 반장의 주민, 복지기관 등을 통해서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복지가 필요한 고립 은둔 및 고독사의 위험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다. 이를 위해서 사회보장정보원이 신복지사각지대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한 위기정보를 44종으로 확대해서 지자체에 제공하고 발굴시스템을 고도화시키고 있다.³⁹⁾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의료사회복지사, 복지관, 좋은 이웃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연계해서 대상자의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독사의 위험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⁴⁰⁾ 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 및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2024년 7월부터 기존 3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전국 220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신복지사각지대 정책과 사업은 사후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고립 은둔과 고독사의 위험에 처한 대상자는 매우 많은데 이들을 발굴하는 공공과 민간의 체계는 매우 제한적이다. 물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같은 공무원이 직접 잠정 대상자를 방문해서 발굴하는 체계는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대응 등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물론 복지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고독사 시범사업 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간단한 안부 확인과 아주 기본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가령, 요리교실 등) 등을 운영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39) 위의 글.

40) 법제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5.

지속적으로 고립 은둔이거나 고독사의 위험 대상자를 지원하고 돌볼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한 것이다. 가령, 청년과 중장년은 사고나 질환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심리적 정신적 질환을 갖고 있어도 노인처럼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보편적인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없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가족부양과 일상생활 등을 온전히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물론 최근에 중장년과 청년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가사서비스,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공기관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예산이 적은 수준이다.

요컨대, 정부가 최근에 고립 은둔과 고독사의 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그 수많은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공적 체계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 같은 사회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거시적으로 저성장구조가 고착화되고 AI로 인한 디지털 전환으로 단순직 일자리 줄어들면서 일자리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실직 상태에 처하게 될 청년, 중장년, 노인들의 숫자가 더욱 늘어나면서 고립 은둔과 고독사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문화적으로 개인주의화와 개별화가 가속화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워지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V. 교회의 역할 모색

이처럼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면서 관계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사회 윤리적 시각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사회제도를 통해 매개되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책임의 측면이다. 책임윤리

는 행위의 결과들도 고려하여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⁴¹⁾ 사회제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된다.⁴²⁾ 첫째, 나와 나 자신의 관계로 개체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둘째, 나와 너 또는 너희의 관계로 상호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마지막은 나 또는 우리와 그것의 관계로 생태학적 측면을 고려한다. 세 가지의 관계는 모두 사회제도 속에서 매개된 책임과 연관성이 있다. 나와 나 자신의 관계에서 나는 경제적 소외와 건강의 소외로 나타난다. 나와 너 또는 너희 관계에서 상호 간의 협력의 불화로 인한 갈등이 발생한다. 나 또는 우리와 그것의 관계에서 사회환경으로부터 비롯된 구조적인 사회고립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관계성의 회복을 위해서 사회윤리적 접근이 요구된다.

기독교는 관계의 회복을 정의로 보는 시각이 있다.⁴³⁾ 창조론적 입장에서 인간의 타락은 곧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생태 사이의 관계의 파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세계⁴⁴⁾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인간과 생태의 관계의 회복이 과제인 셈이다. 특히 외로움과 고독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관계성의 회복은 바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 회복인 것이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보복적 정의

41) A. Rich, *Wirtschaftsethik I*, 강원돈 옮김, 『경제윤리 1: 신학적 관점에서 본 경제윤리의 원리』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3), 38.

42) 마르틴 부버(M. Buber)는, M. Buber, *Ich und Du*, (Berlin: 1923), 나와 너(Ich und Du), 나와 그것(Ich und Es)의 관계에 집중한다면, 리히(Rich)는 나와 나 자신(Ich und Selbst)를 첨가해서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한다. A. Rich, *Wirtschaftsethik I*, 44-53.

43) 강원돈, 『기독교 경제윤리론-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시장경제의 규율 방안』 (서울: 동연, 2024), 103.

44) 최경서, “국가의 안전망: 정의와 평화의 수립에 대한 신학적 성찰,” 『기독교사회윤리』 46(2019), 261.

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교정적 정의는 기독교와 교회와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창세기 1장 28절의 성서의 증언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마주 서서 대화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만큼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대화의 파트너로 삼을 만큼 인간을 신뢰한다.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버렸지만,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칭의로 다시금 관계를 회복할 힘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힘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정의인 것이다.

신학적 의미에서 간단하게 관계성의 회복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면, 이제는 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교회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공동체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교회가 가진 유용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활동적인 삶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공동체 형성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다.⁴⁵⁾ 큰 틀에서 교회의 역할을 제시한다면, 교회는 사랑을 베푸는 자아성찰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 공동체를 위해 교회가 논의해야 할 중심 규범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구원을 통해서 구현되며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사랑받은 존재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은 기독교의 책임이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준다. 물론 구원에 대한 선포와 사랑을 위한 실천은 구별되어야 하지만 갈라질 수 없다.⁴⁶⁾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⁴⁷⁾

성서에서 강조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랑의 실천은 교회의 사회적 역

45) 이상훈, “중고령자들의 시간 이해가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사회윤리』 53(2022), 392.

46) G. Brakelmann, *Zur Arbeit geboren?, Beiträge zu einer christlichen Arbeitsethik*, (Bochum: SWI, 1988), 88.

47) 위의 책.

할로 해석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신명기법은 사회적 약자인, 과부, 나그네, 고아 등에 관심을 가진다. 이들과의 관계성의 형성을 신명기법이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기에 대한 사람의 응답 속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며,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다.⁴⁸⁾ 신약성서의 전승에 따르면, 예수의 메시아 됨의 인식의 선포인 누가복음 4장 18-21절에 가난한 사람들, 포로 된 사람들 그리고 눈먼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마태복음 25장 31-46절에 사회적 약자와 예수 자신과의 동일시됨,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7-28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약자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볼 때, 교회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다.⁴⁹⁾

외로움과 고립의 시대 교회가 가져야 할 역할을 위한 윤리적 규범은 또한 연대성이다. 단지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전통적인 연대성과 다른 “총체적 연대성(Gesamtsolidarität)”⁵⁰⁾의 관점에서 교회가 가져야 할 연대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이웃사랑의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웃사랑은 연대성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역할은 바로 이웃사랑을 통한 연대성이다. 본회퍼(Bonhoeffer)가 말한 “의지의 공동체(Willengemeinschaft)”⁵¹⁾ 속에서 사회적 약자로 향하는 의

48) 이와 같은 해석으로 이사야, “구약의 사회적 약자와 법전의 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18(2009), 275-278를 참조하라.

49) 최경석, “참여정의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고찰,” 『기독교사회윤리』 35(2016), 358-359.

50) G. Brakelmann, *Vom Unverbindlichen. Gedanken eines Christen zum demokratischen Sozialismus*, (Güterloh: Güterloher Verl., 1976), 94.

51) D. Bonhoeffer, *Sanctorum communio. Eine dogmatische Untersuchung zur Soziologie*, J. von Soosten, Hg. (München: Kaiser Verl., 1986), 51. 교회의 공동체는 의치를 일치시켜 동일한 방향성을 향하는 의지의 공동체이어야 한다. 교회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일치된 의지의 공동체임으로 구성원들의 상호 영향력 속에서 합의와 일치를 보는 공동체이다.

지로의 합의를 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총체적 연대성”을 고려할 때, 교회는 사회적 약자의 고립과 외로움을 묵인할 수 없다. 이들과 연대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회는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로 인해서 만날 사람이 없고 일상을 나눌 수 없는 삭막한 현실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주민들에게 사회적 관계망을 적극 만들어주는 주체로 나설 필요가 있다. 앞에서 제시한 대로 정부가 복지 예산을 투입해서 외롭고 고립된 사람을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신앙생활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한다. 윤리적인 성찰과 실천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보다 더 개선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유기적 신앙생활로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로 나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성도들을 통해서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즉,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인간에게 교회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형성 및 유지하는 동시에 의미 있는 공동체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 내 소그룹을 활성화시켜서 성도 간에 교제를 통해서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이 외롭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실패감으로 인해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을 고려해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물질적 정신적 지지를 해야 한다. 아울러, 외롭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지역 주민을 발견했을 때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성도 혼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그룹의 성도들이 함께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집단으로 활동에 나서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외롭고 고립된 사람은 처음에는 성도의 호의와 지지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깊은 내면에는 사람

에 대한 그리움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것처럼 말이다. 이를 위해서 각 교회가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교회가 은둔 고립자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주체로 나서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⁵²⁾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지역의 곳곳에 있는 교회가 개방되어서 그들에게 공간과 섬, 관계의 회복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⁵³⁾

VI. 나가는 말

한국사회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겪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인은 건강악화와 은퇴와 실직 등으로 인해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한국 사회가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청년, 중장년도 적지 않다. 이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사실상 전 생애주기의 국민이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면 일부는 우울, 고립·은둔, 자살, 고독사와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는 악순환에 처하게 된다.

이 같은 사회문제에 대응해서 정부는 이들을 ‘신복지사각지대’로 규정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는 고립된 이후에 지원에 나서 는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증가하는 대상자에 비해서 행정력과 민관

52) 노형구, “청년 청소년 등 은둔고립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독교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32129>, 2025.2.10

53) 신하영, “사회적 재난 속 교회의 역할”, 2021. 기독교윤리실천운동, <https://cemk.org/21808/>, 2025.1.20

협조는 여러 한계가 있다. 질병과 사고 등으로 인해 청년이나 중장년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에 처해도 이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매우 미흡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해서 기독교는 신학적 의미에서 관계성의 회복이 필요하다.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공동체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큰 틀에서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는 의지의 연대성을 회복하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총체적 연대성 속에서 그들의 관계를 형성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작은 틀에서 지역교회는 외롭고 고립된 주민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들과의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교회 내 소그룹을 활성화시켜서 성도 간에 교제를 통해서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이 외롭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동시에 소그룹의 성도들이 함께 집단으로 활동에 나서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예수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신 것처럼, 교회는 그들의 영성과 심리를 지원하고 관심과 지지로 그들에게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원돈. 『기독교 경제윤리론-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시장경제의 규율 방안』 서울: 동연, 2024.
- 권혁남.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문제와 교회의 사회적 책임.” 『신학과 실천』 39(2014), 461-480.
- 김성아 외. 『서울시 1인가구 외로움·사회적 고립 실태와 대응전략』 서울연구원, 2022.
- 김진희.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상태에 따른 유형 분석.” 『한국과 세계』 6/6(2024), 527-551.
- 노형구. “청년 청소년 등 은둔고립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독교일보, 2025
- 박선희·최영화. “중장년 남성 고독사 고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탐색적 사례 연구: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8(2020), 45-78.
- 법제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5.
- 보건복지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로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발표.” 2022.
- _____. “고립·은둔 청년, 이제 국가가 돕겠습니다. 2023 실태조사 결과 바탕, 관계부처 합동,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발표.” 2023.
- _____.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
- 송해영. “외로움 전염: 국제사회 동향 및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연계’의 의미.” 『복지이슈투데이』 2025 10-11.
- 서영석 외. “한국인의 외로움 (loneliness): 개념적 정의와 측정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2(2020) 205-247.
- 신하영. “사회적 재난 속 교회의 역할”, 2021. 기독교윤리실천운동, <https://cemk.org/21808/>, 2025.1.20
- 신혜형, 최성수, 김학령, 이영주.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각된 외로움 여부에 따른 비교.” 『사회복지정책』 50/3(2023), 5-29.
- 오만중. “사회적 고립과 단절에 대한 교회의 실천적 역할과 과제.”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세미나』 2025, 343-370.

-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세계행복보고서』 2023.
- 이샤야. “구약의 사회적 약자와 법전의 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18(2009), 259-288.
- 이상훈. “중고령자들의 시간 이해가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사회윤리』 53(2022), 381-409.
- 윤홍식. 『이상한 성공』. 서울: 한겨레출판사, 2021.
- 지표누리. “사회적 고립도.” 2025.
- 최경석. “참여정의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고찰.” 『기독교사회윤리』 35(2016) 345-372.
- _____. “국가의 안전망: 정의와 평화의 수립에 대한 신학적 성찰.” 『기독교사회윤리』 46(2019), 247-271.
- 최선아. “누가, 얼마나 외로운가? 외로움 실태조사.”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 속의 여론』, 21 Feb. 2024.
- 통계청. 『2021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2021.
- _____. 『사회조사: 사회적 고립』 2024.
-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2025.
- 홍유빈.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질적연구』. 2024. 인천대학교, MA thesis.
- 황수진 · 홍진표 · 안지현 · 김명현 · 정서현.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60/4(2021) 291-297.
- Bonhoeffer, D., *Sanctorum communio. Eine dogmatische Untersuchung zur Soziologie*, von Soosten, J. Hg. (München: Kaiser Verl., 1986)
- Brakelmann, G., *Vom Unverbindlichen. Gedanken eines Christen zum demokratischen Sozialismus*, (Güterloh: Güterloher Verl., 1976)
- _____. *Zur Arbeit geboren?, Beiträge zu einer christlichen Arbeitsethik* Bochum: SWI, 1988.
- Buber, Martin, *Ich und Du*, Berlin: 1923
- Cacioppo, J. T. and Hawkey, L. C., “Perceived Social Isolation and Cogni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3/10(2009), 447-454.
- Cacioppo, J. T., and Patrick, W., *Loneliness: Human Nature and the Need for Social Connection* W. W. Norton & Company, 2008.

- EIU. “민주주의 지수 2023: 갈등의 시대(Democracy Index 2023: Age of conflict).”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4.
- Hawkley, L. C. and Cacioppo, J. T., “Loneliness Matter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of Consequences and Mechanisms.”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40/2(2010), 218-227.
- Holt-Lunstad, J., 외.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s Risk Factors for Mortality: A Meta-Analytic Review.”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0/2(2015), 227-237.
- James, B. D. 외. “Late-Life Social Activity and Cognitive Declin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uropsychological Society* 17/6(2011) 998-1005.
- Perlman, D. and Peplau, L. A.,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Loneliness.” Gilmour, R. and Duck, S. (Ed.) *Personal Relationships in Disorder* Academic Press, 1981 31-56.
- Rich, Arthur. *Wirtschaftsethik I*. 강원돈 옮김, 『경제윤리 1: 신학적 관점에서 본 경제윤리의 원리』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3.
- Valtorta, N. K. 외.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s Risk Factors for Coronary Heart Disease and Stroke: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Heart* 102/13(2016) 1009-1016.
- Weiss, R. S.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MIT Press, 1973.

논문투고일: 2025년 03월 16일

심사개시일: 2025년 03월 17일

게재확정일: 2025년 04월 05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문헌고찰 방법론을 채택해서 사회복지와 기독교윤리 관련한 광범위한 문헌을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현실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청년과 중장년, 노인에게 광범위하게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아냈다. 특히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우울, 자살, 고독사와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와 직결되고 있었다. 정부는 최근에 이 같은 신복지사각지대 이슈에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고 대상자에 대한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해서 신학적 의미에서 관계성의 회복의 중요하다.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공동체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외롭고 고립된 주민을 찾고 그들과의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회 내 소그룹을 활성화시켜서 성도 간에 교제를 통해서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이 외롭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소그룹의 성도들이 함께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집단으로 활동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

주제어: 외로움, 사회적 관계, 사회적 고립, 관계의 회복, 교회의 역할
